

## ‘부동산 원정 투기?’ 광주 봉선동 주시한다

최근 봉선·수완 아파트값 급등...외지인 부동산 거래 ↑

남구청, 연말까지 불법거래 의심사례 집중단속 나서기로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조치 이후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원정 투기’가 늘어나면서 광주 봉선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몇개월 새 아파트값이 치솟은 데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작전세력에 의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광주 남구 봉선동과 수완동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봉선동 지역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특정 아파트 여러 채를 높은 가격에 매수해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갭투자’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봉선동 A아파트(34평형)의 경우 지난 7월 7억4000만원에 나왔던 호가가 10월 8억4000만원으로 뛰었고 이달 들어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 378건 가운데 외지인 거래 건수가 135건(35.7%)에 달했다.

봉선동에서 거래되는 아파트10채 중 3채 이상 팔로 외지인들이 매수하는 셈이다.

광주 전체 외지인 매입 비율도 꾸준히 높아 지난 1월 16.6%였던 것이 9월에는 20.3%로 높아졌다.

광주시는 최근 집중단속을 통해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 총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나 아파트 투기세력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막고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광주 봉선동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현재 국



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권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별도로 광주 남구청은 외지인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사례 전

수조사에 나섰다.

봉선동 일원에서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여개 소로 이 중 외지인 거래가 많은 30여 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웃집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외지인 투기세력을 막고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전남 초등학교 전체에 우유 무상 급식한다

전남도·도교육청 협의 끝 추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전체에게 우유를 무상 공급한다.

24일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시·군·도교육청 관계자 등 30명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우유 무상 급식 범위를 지역 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학생 수 250명 미만의 학교에서만 우유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화순에서는 초등학교 전체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 전체 초등생 9만2582명 대상

내년 3월부터...전국 첫 시도

부족한 예산 시·군비로 충당

이외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 등의 학생들에게만 무상 지원하고 있다.

전남 지역 초등학생은 이달 기준 9만 2582명이다.

전남도는 이 중 5만0306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족한 예산은 일단 시·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국에서 첫 시도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10월 정육민 전남도 의원은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 우유 급식 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학교 우유 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정환기자

##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



###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이 24일 2020년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에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으며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국가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여한 각 분야의 대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장은 자치의정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

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김 의장은 7대, 9대, 11대 3선 의원으로 현재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20년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에 수상한 김한중(왼쪽 두번째) 전남도의회 의장.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